

대학 홈페이지
관리 계정 도용
교외접속 차단
원인규명 진행중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우리학교 홈페이지(www.khu.ac.kr) 관리자 계정 도용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관리자 명의로 '경희대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까까사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것으로, 두 게시물은 4시간 동안 각각 1만 3,000건과 9,8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초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이나 학교 홈페이지 해킹 등으로 알려져 추가피해를 우려했으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와 관리자 계정을 단순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유출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지원처 측은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권한은 홈페이지 관리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보지원처는 현재까지 범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학차원의 1차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다. 출판문화원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해당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의뢰할지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대학 외부에서의 관리자 페이지 접속은 모두 차단된 상태이며,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보안 역시 강화시켰다”라고 말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이뤄진 후속조치인 것이다.

한편 게지물이 약 4시간 동안 방치돼 허술한 대응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웹 기획과 페이지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은 출판문화원이지만, 보안전문 인력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일은 휴일로 인해 업체 측과의 연계 대응 과정이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출판문화원 측은 대학본부에 보안 전문 인력 총원 요구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여도 ‘할 수 있다’는 신뢰 회복 이뤄야”

총여학생회 인식도 조사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양성평등연대 김동근(Postmodern음악학 2008) 대표와 국제캠퍼스 총여학생회(총여) 남습기(스페인어학 2012) 회장의 인터뷰가 지난 9월 대학주보 제157호에 게재됐다.

총여와 생리공결제 폐지를 주장하는 김 대표와 이를 반박한 남 회장의 인터뷰 내용은 대학주부 온라인에서 6,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학주부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1만 명이 열람했다. 그러나 이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어진 논의는 예상보다 예민하고 감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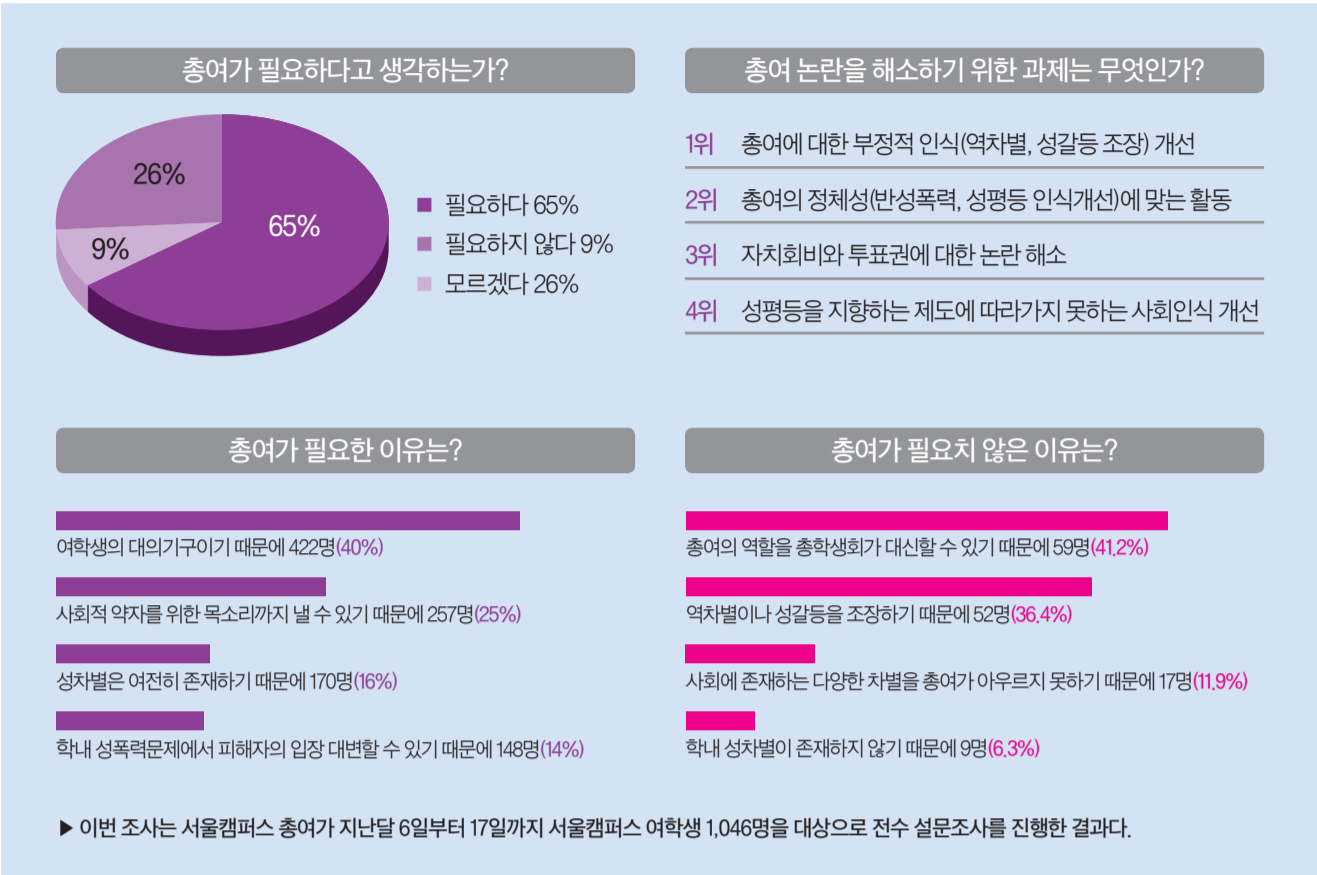
이런 와중에 서울캠퍼스 총여가 자치회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100% 참석을 기록해 개근상을 받았다.(음악대학 학생회 역시 두 상을 모두 수상했다.) 자치회비 콘테스트와 개근상이 상징하는 것은 서울캠퍼스 총여가 '정렬하게' 운영됐고, 또 성실하게 대표표를 수행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총여의 역량 문제에서 이들은 자유로운 것일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그래서 서울캠퍼스 총여 환경경(정치외교학 2011) 회장과 금혜영(여동가족학 2012) 부회장을 지난달 30일 만났다.

“자치회비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낸 소중한 돈이다. 때문에 쓸 때마다 논의를 했다. 정말 긴장하며 썼다. 돈의 목적과 의도가 학생들이 정당하고 또 투명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했다. 첫 번째 공약이 ‘자치회비의 투명한 공개’였는데, 수상해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다.”

-중운위에 32회 모두 참석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개근’할 수 있었던 동력이 궁금하다.

“지난해 총여가 공식이었던 만큼 올해 행보가 더 중요했다. 신뢰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역시 성실성과 진실성이었다. 한정된 시간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 때문에 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특히 총여의 특성상 기증, 즉 학생 개인으로부터 의견이 올라오는 창구가 제한된다. 중운위에서 다른 단과대학 회장을 통해 각 단과대학 별 학생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 더 열심히 참여했다.”

덕담을 나누고, 본론을 꺼냈다. 총여 존



페난란은 비단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당
장 올해 홍익대와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바
있다. 서울캠퍼스 총여 역시 상황을 인지하
고 있었다. 때문에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
지 여학생 1,046명을 대상으로 ‘총여 인식
도 조사’를 진행했다. 직접 설문조사를 돌
리며 진행한 전수조사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 무엇인가?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였다. 총여가 논란이 되는 이유로 꼽은 것은 ‘부정적 인식’이 가장 많았고, ‘자치회비는 공통으로 운영되는데, 남학생에게 투표권이 없어서’가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에서 느낀 총여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은 결국 ‘명확한 활동을 바란다’는 점이다. 논란이나 공격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총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그러서 총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회의 성차별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을 받지만, 학내에서는 ‘더 이상 학내 성차별’은 없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학교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위치한 작은 사회다. 때문에 학내에서 성차별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지 못하면, 사회의 성차별 역시 해결하지 못한다. 제도적 지원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본다. 이제 제도를 넘어 의식의 진전을 이뤄

야 한다.”

-남학생의 자치회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치회비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이 총여에 자치회비를 내는 개념이 아니라, 해내 자치활동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납부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모인 자치회비를 총여도 분배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총여가 여학생의 자치회비만 사용해야 한다면, 총동아리연합회부터 총유학생회, 교직원 집위원회 등 모든 특별기구의 자치회비 문제로 불거진다.”

-남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면 총여에 문제가 생기나?

“그렇다. 총여의 존립근거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총여는 여학생을 대하는 기구다. 다만 여성 ‘만’을 위한 기구는 아니다. 예를 들어 밤길에 앞에 걷는 여자가 뒤에서 걷는 남자를 흘금 쳐다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남성의 불편함 혹은 불쾌감이 여성에게만 공감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이나 여성의 탓이 아닌 사회적 구조 문제다. 온전한 성평등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야 한다. 그 ‘함께 가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 상대적으로 뒤처진 여성의 권리를 대의하

고 있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일인데 성대
결로 몰고가는 것이 안타깝다.”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아이러니를 느꼈다. 총여가 말하는 ‘총여가 해야 하는 일’은 ‘인식개선’이다. 제도가 아닌 생각의 변화다. 이를 위해 총여는 캠페인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여학생조차 보다 분명한 활동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활동은 ‘행사’ 중심으로 총여의 활동을 축소시킨다. 다시 총여의 존재이유가 공격받는 배경이 된다.

이에 대한 총여의 답은 '성취'였다. “총여가 ‘성취’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총여의 활동은 총여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지난해 공식의 부담 때문이다. 그래서 총학생회처럼 눈에 띄는 변화, 예를 들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기숙사 문제에 적극 나서는 등의 일을 보여주지 못했다. 때문에 총여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신뢰가 회복돼 총여의 필요성도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

여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는 ‘폐지’가 아닌 ‘개선’이었다. 개선을 위한 일은 총여가 주장하는 대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 시작점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총여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다.



경희사랑 발전기금(24시)
02) 961-0932



Lion Annual Fund

월 만원으로 학교사랑, 후배사랑 실천

천명이 사랑을 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명이 응원을 하면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십만명이 힘을 합치면
단과대학과 기숙사,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경희를 발전시키는 '저력'입니다

대외협력처 | 서울 02-963-4874~6 하나은행 278-810023-98605 khsa0028@khu.ac.kr
 국제 031-201-3190~1 하나은행 428-141962-19304 future.khu.ac.kr

취업의 길을 찾아!

- 삶의 길을 묻는 그대 : 1,2,3학년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
- 금방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져야 할 그대 : 4학년 1차 취업진로 지원
- 대 상 : 국제캠퍼스 재학생, 졸업생
- 도움 줄 내용 : 입사희망기업 선배매칭, 자기소개서 리뷰, 기업별 면접정보 기업재무제표관련 설명 등 사회를 보는 눈
- 도우미 : 노동섭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장 겸 학생생활상담팀장)
윤재훈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 계장)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상담예약신청 → 취업선택 → 상담가능일확인 후 신청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 노동섭 팀장(rohds@khu.ac.kr) 윤재훈 계장(jhyoon@khu.ac.kr)
※ 종합정보시스템 예약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두 가지 모두 진행해야 신청완료
※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career.khu.ac.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가능
- 장 소 :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상담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11월 첫째 주(11.3~11.7)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 사 명	모집부문	일 시	장 소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 채용설명회	취업진로지원처 공직사항 참조	11.3(월) 10:00~12:00	오바스룸 111호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 현장인사 참조	취업진로지원처 현장인사 참조	11.3(화) 13:00~17:00 11.4(화) 10:00~17:00 11.5(수) 10:00~17:00	천문관 1층 상담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 (사전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에 공직사항 및 취업포장 카운셀러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축적필요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한강 (생명과학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 별일 일정 참조)	오바스룸 354호 ~356호 제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집단 상담	이종구 교수 (학부진 연구실장) 금융관, 대기업 상담	월 18:30~20:30	네오관 103호	“5급/성적” (학부진)		
On Line Off Line 상담	한성택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c@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매주에서 신청 (컨설팅 내용 일정 확인 후 신청)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에 하단에 기재)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발품 기초서 (상담 당일 전날까지 겨우,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가져와주세요!						
3. 취업지원 책자 배부 (나는 이력서작성을 돕겠습니다)						
● 청문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19번 창구에서 학생증 제시 후 수령 (1인 1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전화번호 02-961-0167~8, jdx@khu.ac.kr			위치 청문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자기이해 및 맞춤형 진로개발 워크숍 My Career Design 참가자 모집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진로 준비 혼자 고민할 것 같아, 전문가와 함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기이해 및 맞춤형 진로개발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대학생활 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Vision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워크숍에 경희대학교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교육주최 : 취업진로지원센터(서울캠퍼스)
2. 교육형식 : 자기이해 및 맞춤형 진로개발 워크숍 - My Career Design
3. 일 정 : 신청자는 집단연구로 1~1 상담, 모둠 발표만 있음
4. 대상 및 모집인원 : 경희대학교 재학학생 40명 (1~2학년 우선 선발)
5. 신청 및 예매도 신청 가능 가능
6. 신청 및 예매도 세부 방법
 - 가. 신청방법 : 종합지원시스템 - 인터넷 - 연수신청 - 해당 프로그램 신청
 - 나. 예매기간 : 예매금 5만원
 - 예매금 계좌안내 : 해나은행 2789-910011-9904 본인예금
 - 신청순서와 상관없이 예매금 입금 순으로 신청할 일로됨
 - 반드시 연수신청서 한 후에 입금해야 함(예매금만 먼저 입금할 경우 신청처지 취소 있음)
 - 예매금은 "참가자 위수탁서"를 이행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2주 후 환불해 드립니다.
 - 본 교육은 12월 30일 한도의 교육으로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면, 학생개인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7. 신청확인 - 개별 연락
8. 신청기간: 2014. 10. 21(화)~11. 11(까)까지(신청순서 접수)
9. 참가자의 의무사항
 - 가. [교육 전 1회] Strong 직업탐험대상 응시, [사전취업준비도(JAST)검사 실시 -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응시방법은 40명 접수 완료 후 문자로(이메일로) 안내 예정
 - 나. [교육 후 1회] K-CESA(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 TCC(비판적사고력 평가), [사후] JAST 검사
 -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응시방법은 교육 후로 후 문자로 안내 예정
 - 예매금으로 K-CESA(1회), TCC(1회), JAST검사(2회) 모두 응시 후 환불
 - Strong 직업탐험대상 응시(사전 접수-약20분), JAST검사와 온라인 검사-약10분)
 - K-CESA(온라인 검사 -예매기간 소요), TCC(온라인 시험-약2시간 소요)
 - 시험 당일 및 장소는 개별공지
10. 무단 결석 및 지각 금지 : 무단 결석 및 지각 시 예매금 환불 불가
11. 강의 시간은 희망할 경우 2014. 11. 11(화) 15시까지 취업진로지원센터 연락바랍니다.
 - Strong 직업탐험대상 응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8. 교육 세부내용(요약)
 - 위 일정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가. 식사는 제공하지 않음
 - 나. 문의사항 : 전화 02-961-0167~8 (윤필영, 최선규), 이메일: job@khu.ac.kr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